

### 케이스탯 2021년 4월 사회지표

####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20%p 격차 우세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의견 확산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61%, 최고치 기록
- \_ 정부정책 만족도 : 부정평가 우위 더욱 확고해져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2%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10% 불과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25%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강세 지속
- \_ 주식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45%로 증가

#### ■ 4월 특별지표 : 우리 사회 공정성

- \_ 사회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3%
- \_ 개인적 공정성 평가 : 내 능력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50%
- \_ 사회적 약자 동등한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5%
- \_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동의’ 62% vs ‘비동의’ 38%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4월 9일(금) ~ 4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9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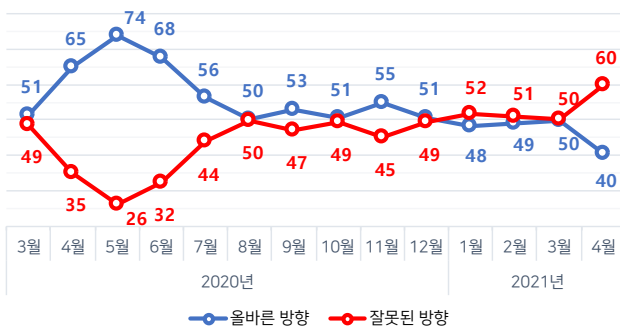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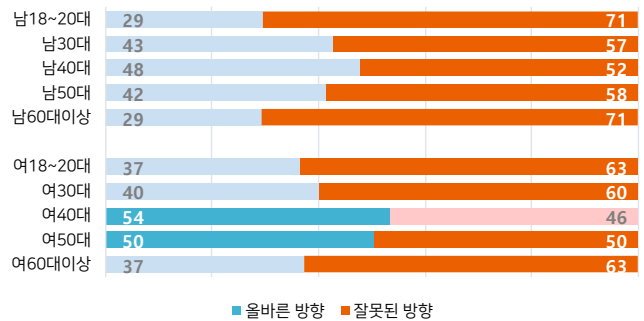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20%p 격차 우세

- 작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을 두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으나, 이번 4월 조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임
  - 2021년 4월 조사결과 '잘못된 방향' 60% vs '올바른 방향' 40%로 그 격차가 20%p에 달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여자50대는 '올바른 방향' 50% vs '잘못된 방향' 50%로 수치가 동일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서울, TK, P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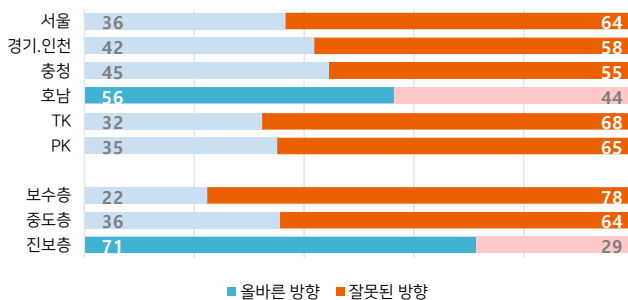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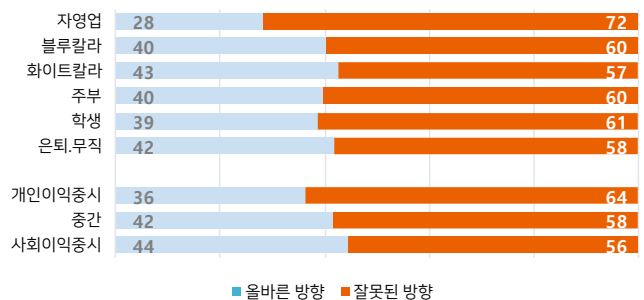
4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4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4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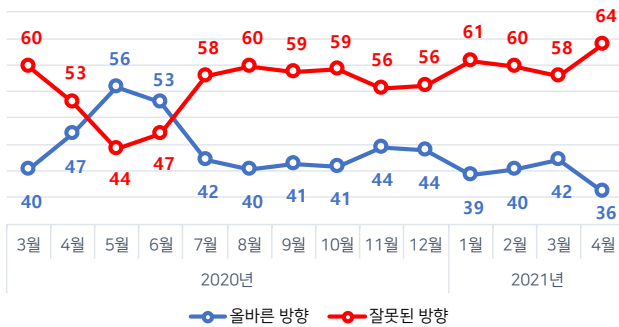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급격한 우위를 점한 배경에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초반에 제기된 LH 신도시 투기 의혹의 전방위적 확산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임
  - : 3월 2일 드러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이후 LH를 넘어 청와대,국회,지방의회 등으로 급격히 확산됨
  - : 특히 여권은 불만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국민들을 향해 '투명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기보다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데 주력하면서 민심과 더욱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임
- ☑ 또한 그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을 받쳐주던 코로나19 방역이 위태로운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선이 '백신'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은 늦고, 3차 대유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 대유행의 입구에 들어선 K방역의 한계마저 노출되면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급격히 후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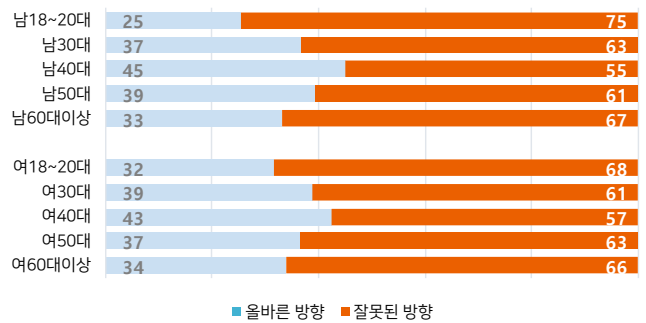
##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의견 확산

-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번 4월 조사에서 '잘못된 방향' 의견이 64%를 기록, 작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갱신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하며,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이 유일함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T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주부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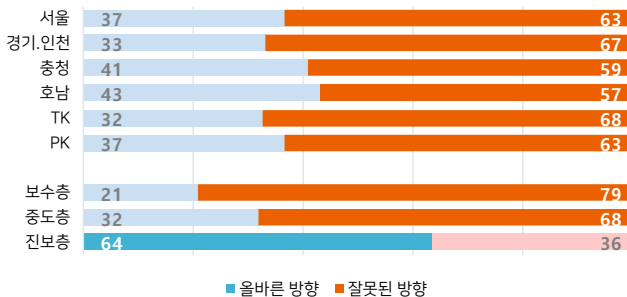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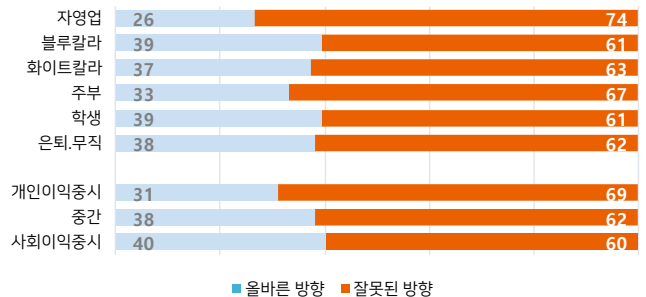
4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4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4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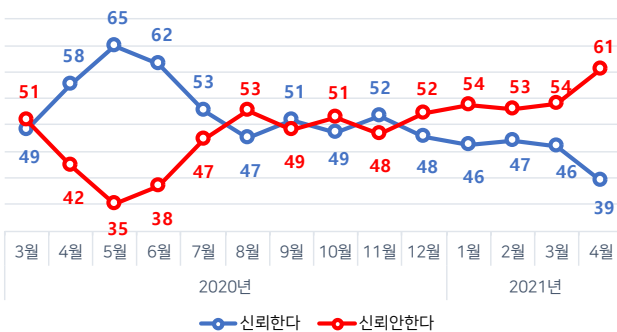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생명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경제적 충격이라는 두 가지 대위기를 낳음
- ☑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극복 역시 당연하게도 '백신'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측면이 요구된다고 지적됨
  - : 여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백신' 개발을 주도해 집단면역의 초기에 진입했으며, 2,240조원 규모 (미국 GDP의 10%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 발표로 경제에 활력을 넣고 있음
  - : 당장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1인당 15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중임
- ☑ 대한민국 역시 'K방역'과 '한국형 뉴딜'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모색했으나, 백신 없는 K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한국형 뉴딜은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 국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충격은 여전할 것임
-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임
  - : 부동산, 방역(백신이 아닌 방역),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등 현안에만 매달릴 뿐 비전이 안 보인다는 냉정한 비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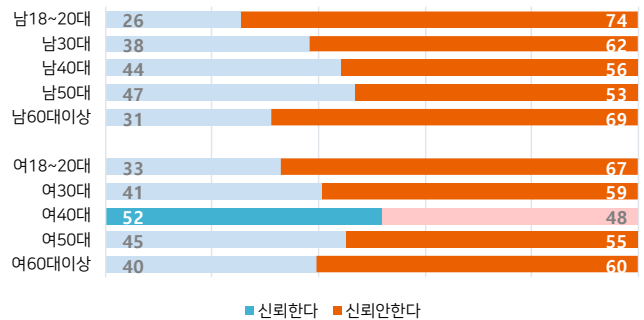
##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61%, 최고치 기록

- 네 달 연속 부정평가 우위를 보이던 정부 신뢰도가 이번 4월에도 이어졌고, '신뢰 안한다'는 부정 수치가 조사 이후 최고치인 61%를 기록함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문재인 정부의 굳건한 지지층이라 일컬어지던 남자 40대, 화이트칼라에서도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 △여자 18~20대 △TK △보수층 △자영업,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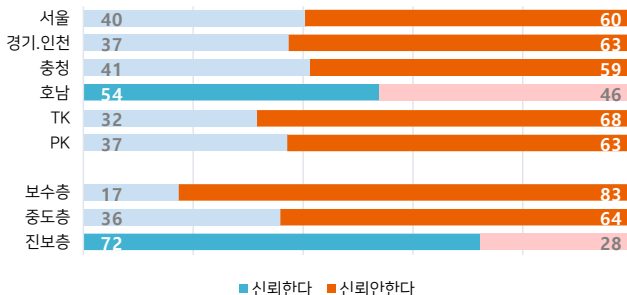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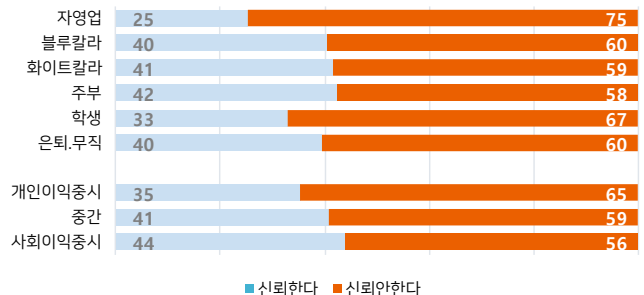
4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4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4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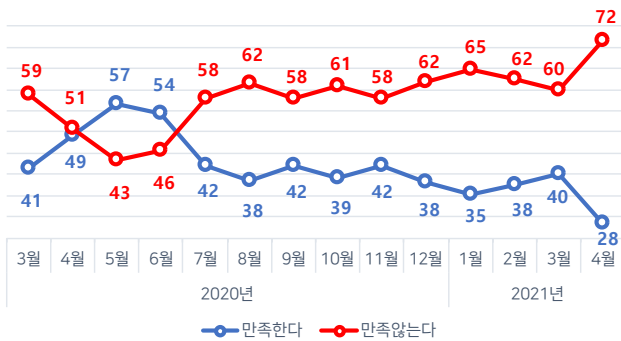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아젠다는 잘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격상 등)과 백신 아젠다만 부각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이 효과를 거둬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백신 접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된다면 정부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여 정부신뢰도는 회복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3차 대유행은 이전의 대유행과 달리 특정 집단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소집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대책만으로 진정시키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임
  - : 또한 6월까지 1,20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불안과 다른 백신 수급 불안 등으로 쉽지 않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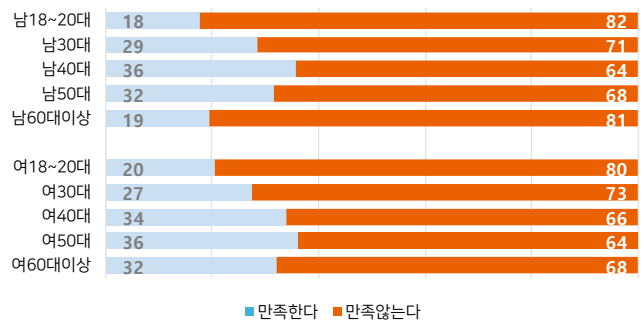
## □ 정부정책 만족도 : 부정평가 우위 더욱 확고해져

- 정부정책 만족도는 10개월 연속으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였고, 수치는 더욱 높아짐
  - 정부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치고,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72%로 나타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보인 계층은 진보층이 유일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T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자 △개인이익증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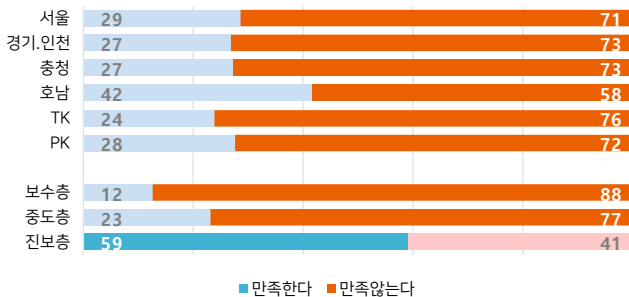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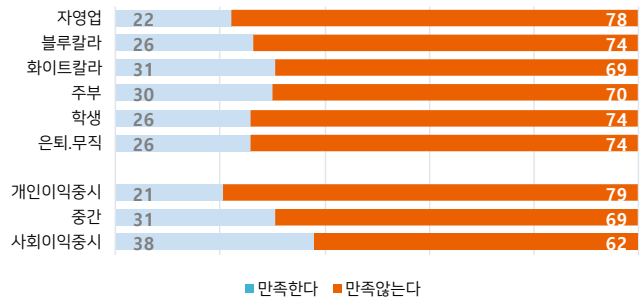
4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4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4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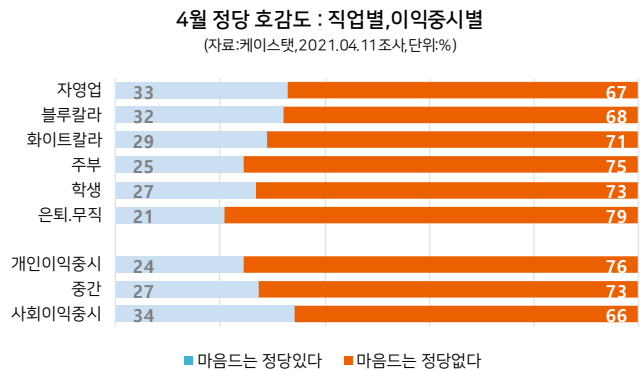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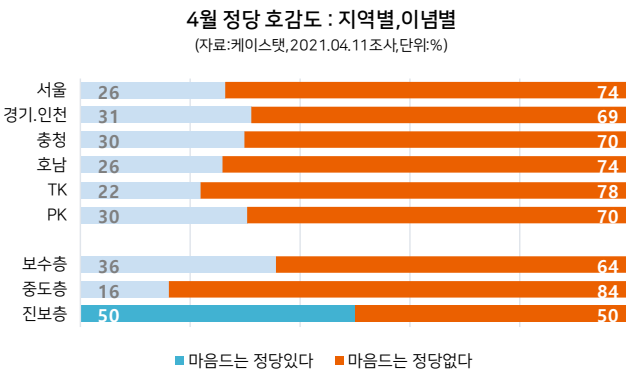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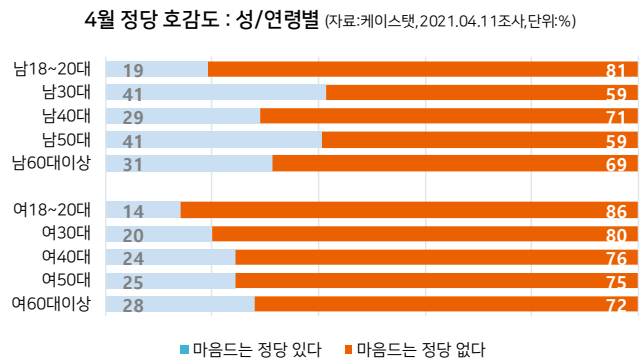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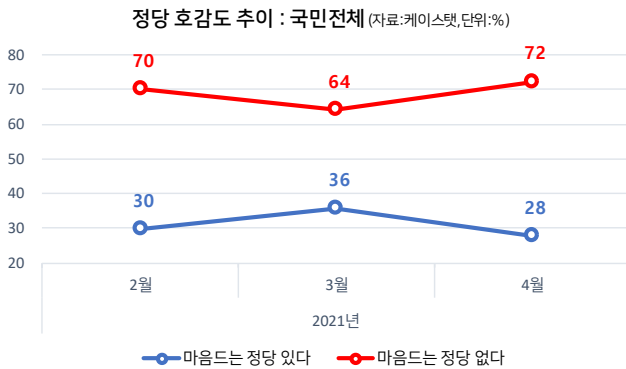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지난 3월, 정부정책에 만족한다는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이었으나, 이번 4월에는 호남마저 이탈하고 진보층이 유일함 : 즉,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만족하는 계층은 진보층밖에 없고, 다른 모든 계층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고함
- ☑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은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개편, 개각, 원내대표 경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마지막으로 당 대표 경선을 진행 중에 있음
- ☑ 이러한 일련의 쇄신책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경우 정부정책 만족도는 상승할 것임
- ☑ 그러나 여전히 진보층만을 의식하고, 진보층이 만족하는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신뢰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선거 국면 본격화와 맞물려 여권 내 계파갈등(친문재인 vs 비문재인)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2%

-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정당은 계속적으로 '없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3월에 '없다'는 의견이 64%로 소폭 줄었으나, 4월에 다시 72%로 높아짐
-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중도층 등임
- 진보층의 경우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공히 50%로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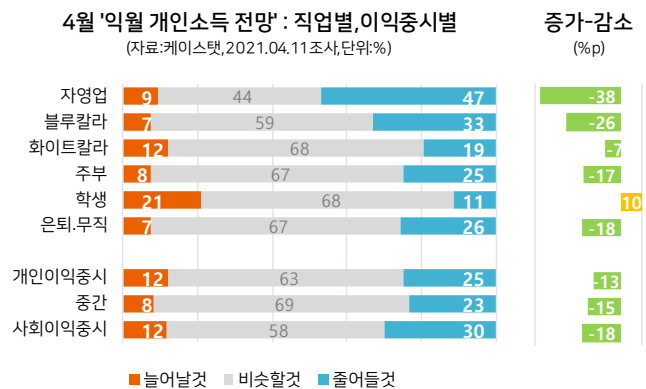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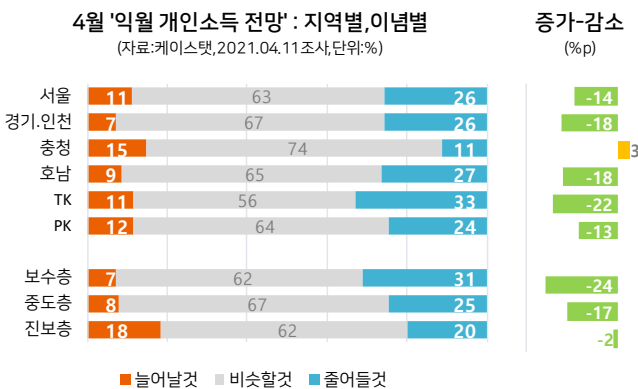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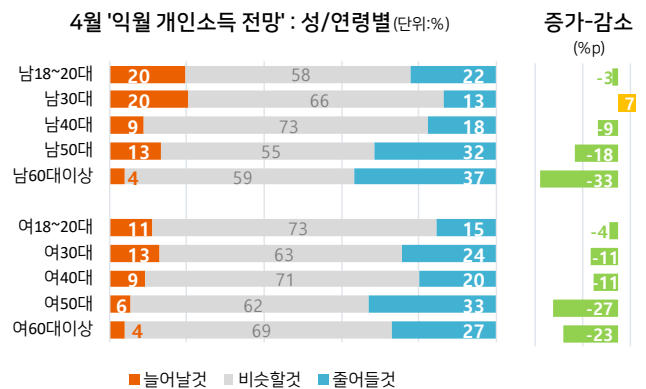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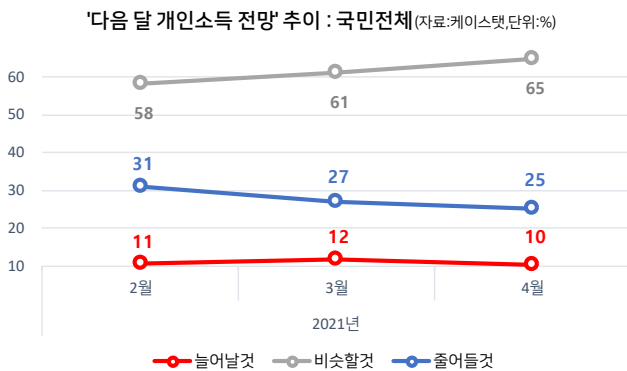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정당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없다'는 의견임
  - : 지난 3월 지표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 후보 우세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싫어서라는 점이 재차 확인되는 지점임
- ☑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진정한 대결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라는 지적임
  - : 대통령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만, 표심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이기에 여야 대선후보들의 능력으로 평가받게 됨
  - : 여당 후보들 역시 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을 경우 이른바 '차별화 전략'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할 것이기에 야당 후보 못지않은 정부 비판에 나설 수 있음
- ☑ 관심은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 후보들과 함께 치러야 하는 미래비전 경쟁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임
  - :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심리에 기반해 있는데, 이는 소멸이 예정돼 있음
  - : 윤 전 총장이 미래비전 제시 능력을 보이고 국민들이 인정할 경우, 기성정당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적 열기가 집중되면서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충분함

##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10% 불과

- 국민들의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으로 '지금과 비슷할 것'이 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줄어든 것' 25%, '지금보다 늘어날 것' 10% 순으로 조사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15%p로 3월 조사와 동일해 소득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증가'에서 '감소'를 뺀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TK △보수층 △자영업, 블루칼라 등임
- '증가'에서 '감소'를 뺀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30대 △충청권 △학생 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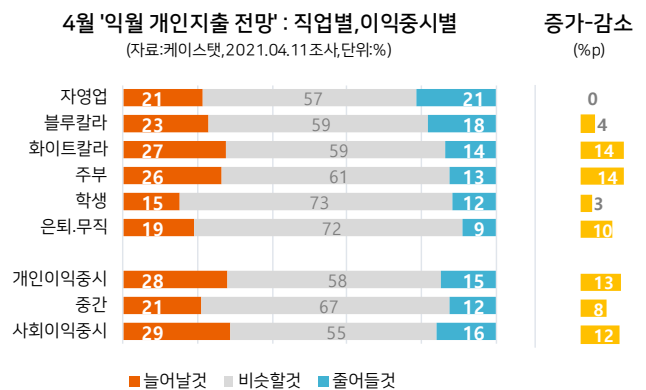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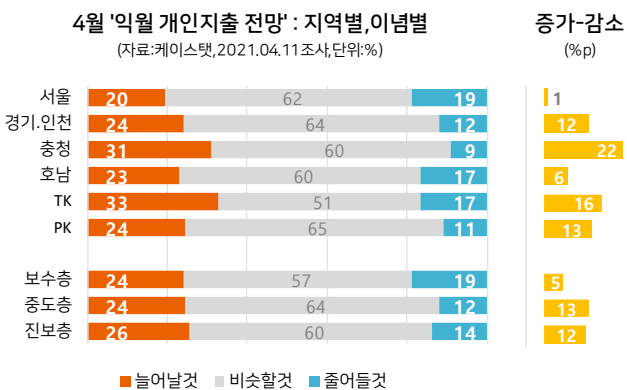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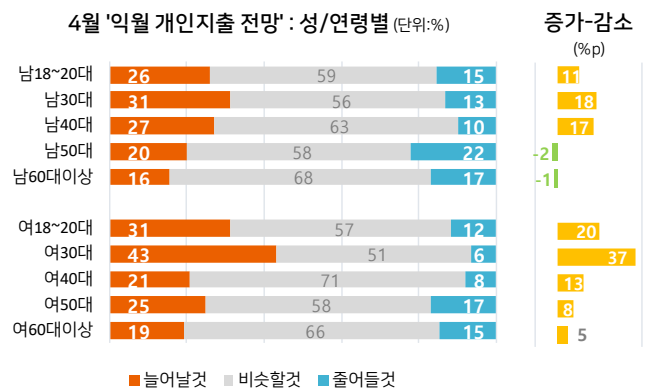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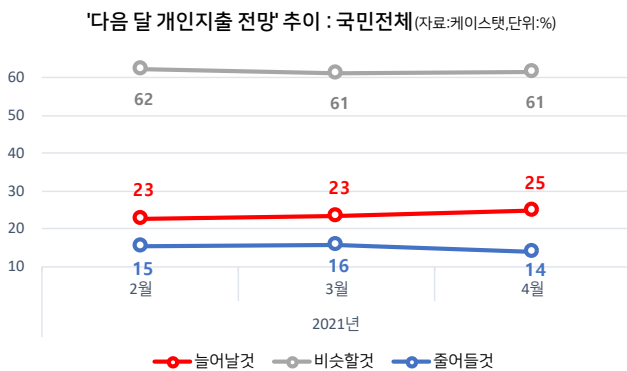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률은 69.6%로 전달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고,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4월 이후에도 고용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취업자 수는 31만 4천명이 늘어나 그 자체로 개선된 것은 사실임
- ☑ 하지만 고용률 개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대와 5060세대의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핵심세대인 3040 고용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개선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 또한 전달 대비 개선일 뿐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은 아직도 갈 길이 멀
- ☑ 국민들이 다음 달 개인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10%에 불과한 것 역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여전한 때문으로 보여, 지금의 국민 여론이 개선되기 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지금보다 늘어날 것' 25%

- 국민 다수는 다음 달 개인 소득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개인 지출 역시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다음 달 지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금보다 늘어날 것' 25%, '지금보다 줄어든 것' 14% 순으로 조사됨
  - '증가'에서 '감소'를 뺀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 다음 달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여자 2030세대 △충청, TK △화이트칼라, 주부 계층 등임
- '증가'에서 '감소'를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다음 달 지출 감소 전망)한 계층은 △남자 5060세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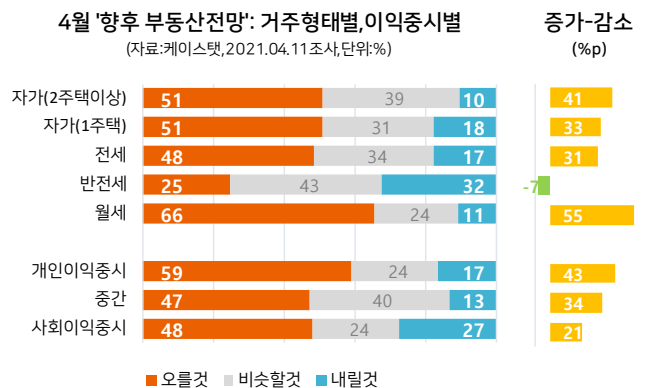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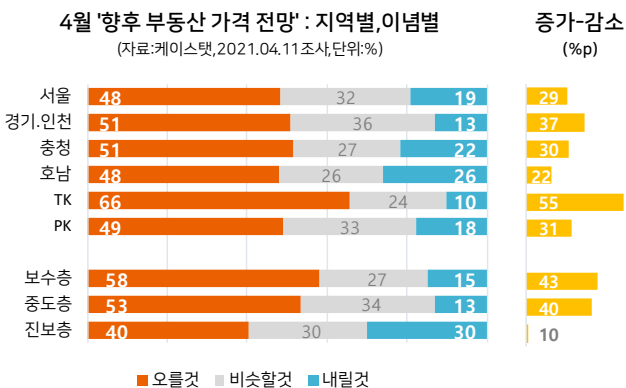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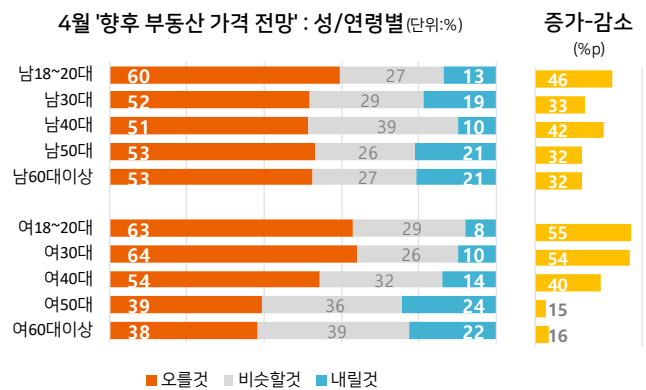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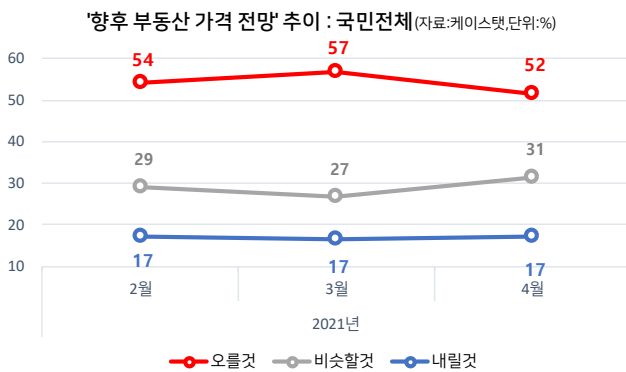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선택은 '빚'을 지는 것임
- ☑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5,000억 원 늘어남
  - : 3월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 최근 OECD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계빚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라면서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할 만큼 가계대출 증가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강세 지속

-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세 달 연속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50% 이상을 기록함
  -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17%)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1%로 조사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증가-감소)가 플러스를 기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의견으로 조사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여자 2040세대 △TK △보수층, 중도층 △자가(2주택 이상), 월세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차이(증가-감소)가 마이너스를 기록,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계층은 △반전세 거주자가 유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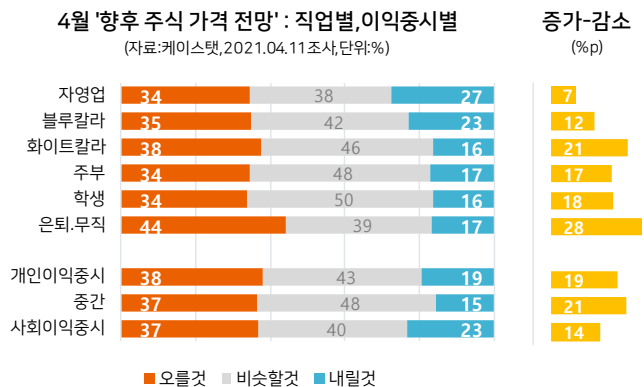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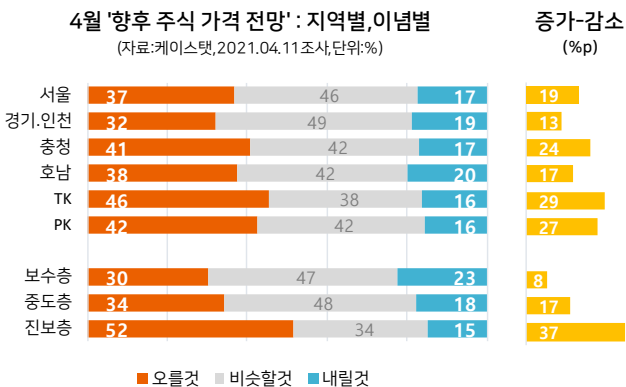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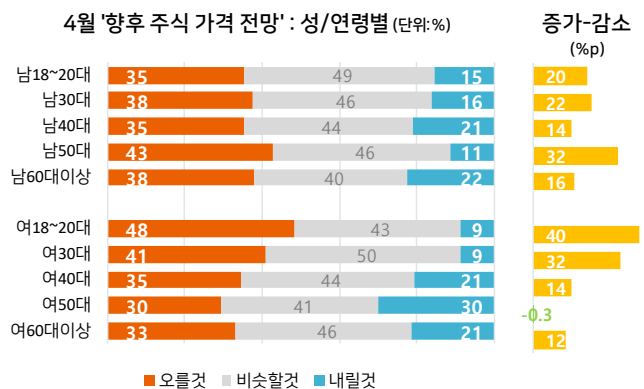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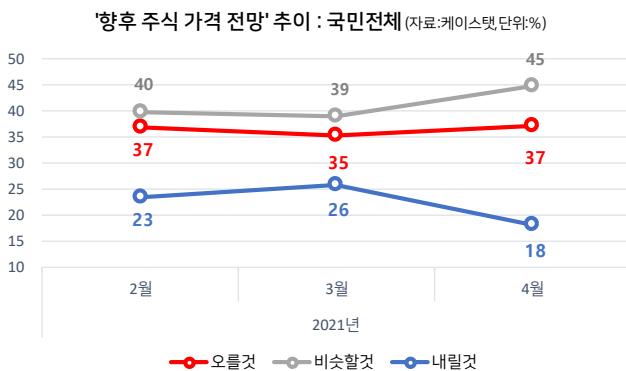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최근 부동산 가격 동향을 종합하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임
  -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지난주(2.23%)보다 상승 폭이 줄었음
- ☑ 그러나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저금리·투자 열풍 사회분위기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임
  - :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호재'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몰려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임
  - : 실제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거의 유일하게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임
- ☑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국민 여론 역시 이러한 사회상황이 온전히 반영된 결과임

## □ 주식 가격 전망 : '지금과 비슷할 것' 45%로 증가

- 향후 주식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전 달에 비해 6%p 증가함
  -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37%이고,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전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여자 50대만 매우 근소하게 마이너스 수치(-0.3%p)를 기록함
-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2030세대 △TK, PK △진보층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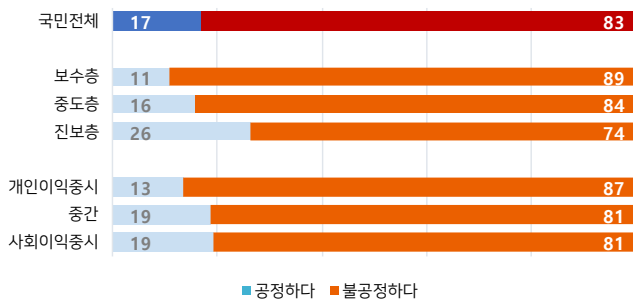
- ☑ 최근 주가는 잠시 조정국면을 거친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민들 역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임
- ☑ 주목되는 지점은 주가가 조정국면을 거치는 과정과 비트코인 폭등이 맞물리면서 상당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한 점임
  - : 금융권에서는 새로 코인 거래에 뛰어드는 개인이 하루에만 최소 6만~7만 명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 주가 상승에 이은 비트코인 상승 등 투자 열풍 속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임
  -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국민 개개인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만회하고자 애쓰는 것으로, 당분간 '빚투'로 대변되는 투자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4월 특별지표 : 우리사회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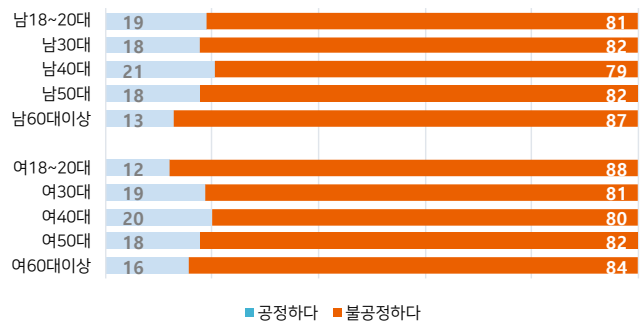
### □ 사회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3%

-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공정하다’는 응답은 17%에 그치고,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83%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중시층 △남자 60대이상 △여자 18~20대 △충청, TK △자영업자 등임
- ‘공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진보층 △남자 40대 △여자 40대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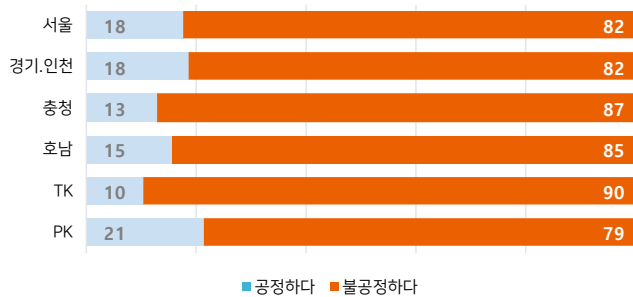
사회공정성 평가: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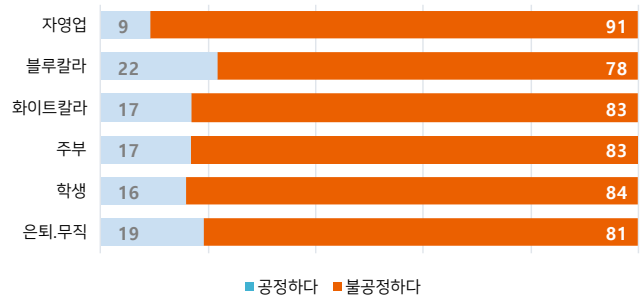
사회공정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사회공정성 평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사회공정성 평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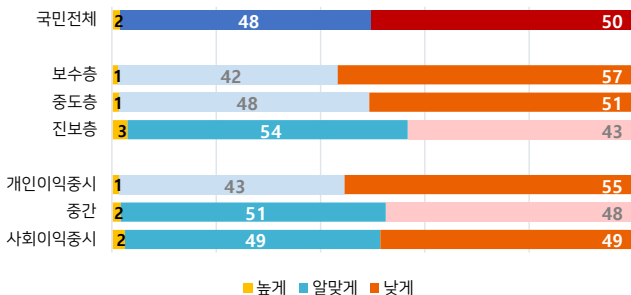
#### Kstat Point

- ☑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정’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정이라기보다 ‘능력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기주의적 공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 ☑ 김정희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개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함
  - : 그는 “모두가 공정한, 즉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따라서 내가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는(다시 말해, 똑같이 보상받거나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신념은 '각자도생'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함
  - : 그러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라면서 “능력주의는 언제나 계층 이동의 신화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과 절차 자체가 구조적 불평등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함
  - : 결론적으로 그는 “능력주의 모델과는 다른, 다시 말해 공정뿐만 아니라 평등과 필요의 원리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정책은 수많은 다른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공정, 평등, 필요의 원리를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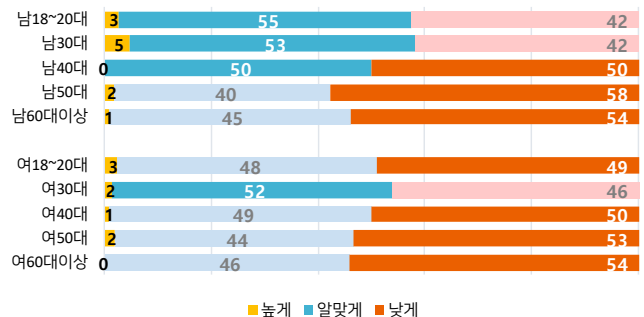
## □ 개인적 공정성 평가 : 내 능력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50%

- 국민들은 개인 차원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선생님은 선생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 50% vs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 48%로 의견이 팽팽함
  -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함
- 계층별로 우세한 응답이 다른데, 먼저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이익중시 중간층 △남자 2030세대 △여자 30대 △충청, 호남지역 △화이트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중시층 △남자 506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60세대 △서울, 경기.인천, PK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등임
  - ‘알맞게’와 ‘낮게’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계층은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40대 △TK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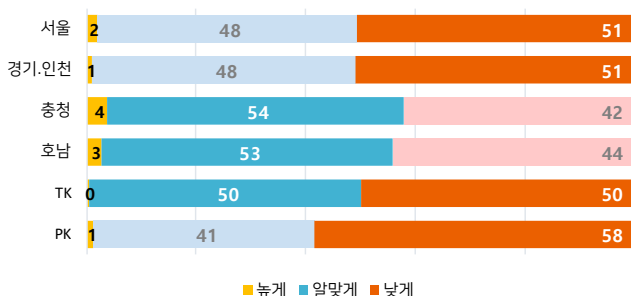
개인적 공정성 평가: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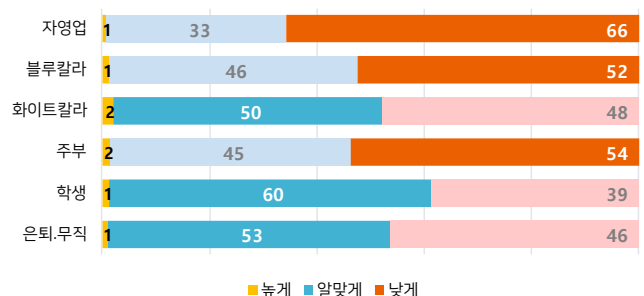
개인적 공정성 평가: 성/연령별(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개인적 공정성 평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개인적 공정성 평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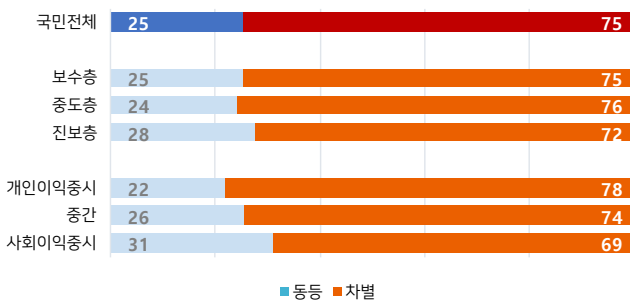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83%)고 생각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로부터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도 높은(48%) 특징을 보임
- ☑ 이는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울한 자신’을 보호하는 합리화 기제이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공정’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됨
  - : 사회지도층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도 자신과 동일한 ‘공정’을 요구하는 태도로 외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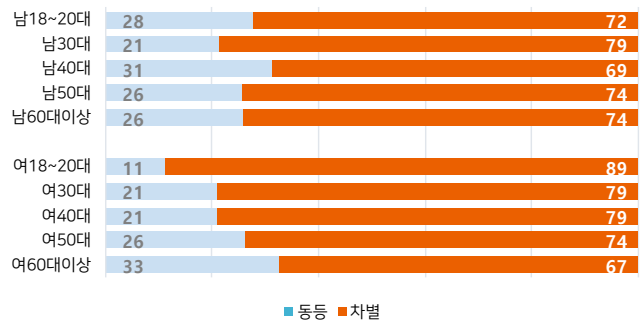
## □ 사회적 약자 동등한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5%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함
  -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은 25%이고, ‘차별하고 있다’는 의견은 75%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음
- ‘차별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개인이익중시층 △남자 30대, 남자 5060세대 △여자 2040세대 △경기.인천, TK △자영업, 주부 등임
-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사회이익중시층 △남자 40대 △여자 60대 이상 △호남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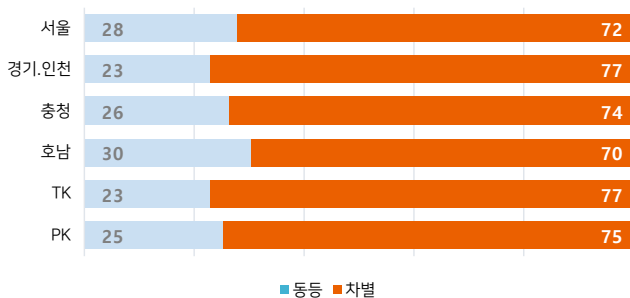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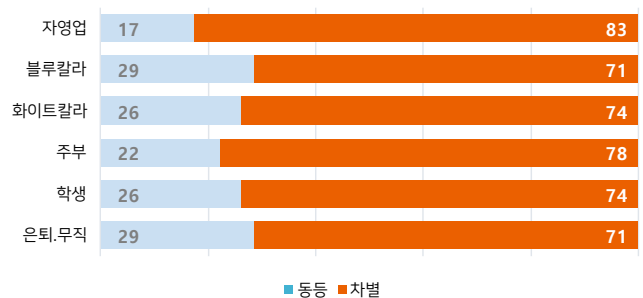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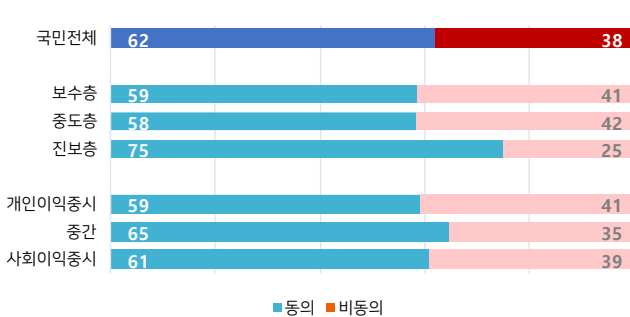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가정이 어렵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매우 뚜렷함
- ☑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는 다양한 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률은 34.9%에 불과함 (2020년 기준)
- ☑ 또한 고용이 되더라도 장애인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인 36.3%보다 20% 이상 높으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 또한 27.8%로 전체인구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인 13.7%에 2배가 넘고 있음(자료, 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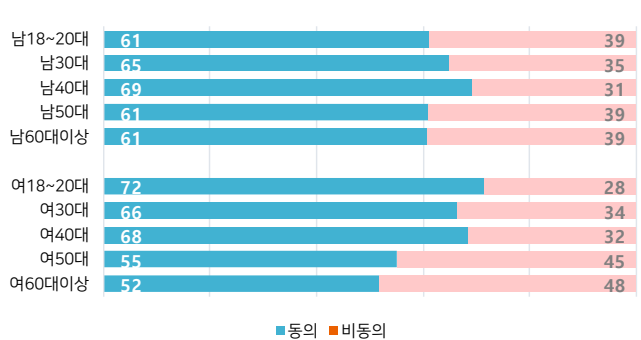
## □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동의' 62% vs '비동의' 38%

-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2%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봐도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동의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남자 40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PK 등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중시층 △여자 5060세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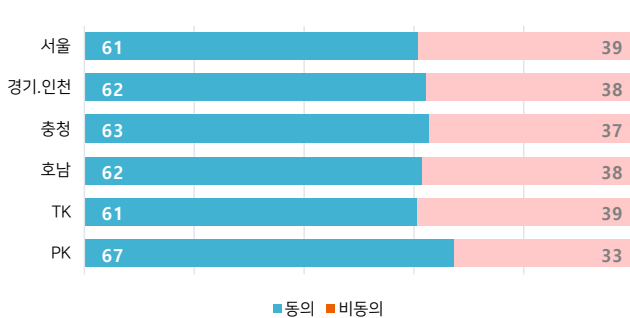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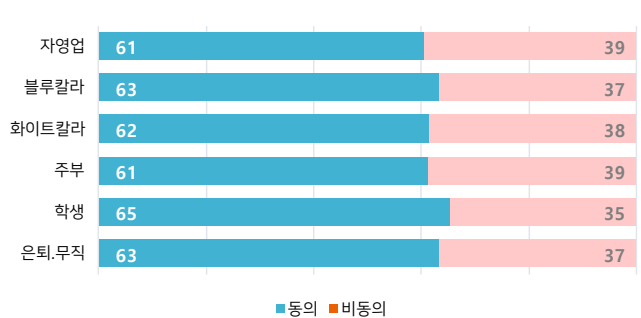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사회적 약자 지원 동의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4.11조사,단위:%)



### Kstat Point

- ☑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같은 출발선'에 위치시키는 것은 형식적 공정이자 능력주의에 다름 아님 :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한 평등,정의로운 공정임
- ☑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들은 평등, 정의로운 공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이러한 국민 의견이 확고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표명함 : 예를 들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런 단어를 빼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질문할 경우 매우 다르게 응답함 : "진학, 취업 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 28% (케이스탯, 2020년 9월 6일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2호 『공정에 대한 국민의식 심층 분석』 참고)
- ☑ 거의 모든 국민이 '공정'을 말하고, '공정'을 요구하지만, 내용은 각자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일종의 '가치관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26호] 발간 안내

26호는 『사회적 보상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